

화순 국화향연 특별한 전시회

인생 닮은 작은 생명체의 움직임 '개미 목공예' 눈길

화순 국화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화순읍 남산공원 군민회관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화제다. '개미 작가'로 잘 알려진 목공예 작가 김관철(56) 씨의 전시회가 국화향연 관람객들의 눈길을 잡아끈다.

조각칼로 나무를 깎고 다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완성한 작가의 개미 목공예 작품을 마주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탄성이 절로 난다.

관람객들은 정교한 작품에 놀라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관철 작가가 개 작품에 대해 묻기도 하고 작품을 촬영하는 관람객이 많다.

나무를 사용해 개미 다리의 관절 마디와 더듬이까지 세세하게 조각해 놓은 개미의 형상들. 실물에 가까운 크기여서 마치 살아있는 듯 정교하다. 14개월에 걸쳐 '만추'라는 대작을 완성해 주목받기도 했다.

5일 전시장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이렇게 작고 세밀한 개미를 보며 먼저 놀랐고 소품 정도가 아니라 수백 마리의 개미가 등장하는 작품을 보는 재미가 솔솔하다"며 "세밀한 조각에 이야기를 담고 있어 개미의 움직임과 생애과정까지 느껴진다"

김관철 작가

군민회관 1층서 전시... 나무로 빚은 개미 '인기몰이'

다"고 감상평을 전했다.

작품 속 개미들의 몸짓과 표정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이 전해진다. 김 작가는 개미를 통해 세상의 소소한 모습을 담아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세계 속의 화순·백두산 천지 - 평화의 오케스트라·천년의 숲 공연 - 전국 노래자랑 화순편·생로병사·견우와 직녀 등이 대표적이다.

귀하고 단단한 흑단·대추나무·호두나무를 소재로 만든 지구본, 지구본을 품듯 감싸고 있는 하트 모양의 소품, 각각각색의 개미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화순'은 지구촌 화합의 한마당을 화순에서 펼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개미는 무려 219마리다. 2019년을 상징한다.

사람의 하트에 줄을 이어 지구본을 219마리 개미가 당기는 모습은 화순 국화향연 관람객을 환영하는 동시에 전 세계가 화순을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개미 매력에 빠져 30년 작품 활동... "나무와 개미는 삶의 활력"

김 작가는 작품 '천년의 숲 공연 - 전국 노래자랑 화순편'으로 2007년 '전라남도 숲 가꾸기 산물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후, 3년 연속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개미와 인연은 28년 전쯤 한 잡지에서 본 일본 작가의 개미 작품이 계기가 됐다.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몸통만 나무로 만들고 더듬이와 다리는 철사였다. 더 정밀하게, 더듬이와 다리도 나무를 깎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때부터 우리네 삶을 닮은 개미를 빚어 왔다. 지금은 개미뿐 아니라 무당벌레, 딱정벌레, 쇠똥구리, 사마귀 등 다른 곤충의 세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김 작가는 모호산 자락 유마사 인근에 자리 잡은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원목 소품 기구 만들기 프로그램 등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개미를 깎느냐고, 또 작품을 팔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우리네 인생과 닮은 작은 생명체의 움직임을 보면 삶의 활력이 넘친다. 나무와 개미는 내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그래서 개미 작품을 절대 팔지 않는다. 행복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작품을 팔면 구매자만 볼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다 전시회를 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보며 기쁨을 나눌 수 있다.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3cm가량 되는 개미 한 마리를 만드는 데 꼬박 하루가 걸릴 때도 있는 고된 작업이지만, 오늘도 그는 개미를 깎는다.

김 작가의 공예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국화향연과 함께 계속된다.

/화순=남효경 기자 hknam@



◆ 국화향연과 함께하는 '개미 작가'의 전시회 '눈길'

김 작가는 '정밀 조각'으로 독보적인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흑단이나 박달나무 등 단단한

동서양 원숭이들의 인간세상 향한 날선 비판·풍자 유쾌한 가족 오락극이 온다!



광주시립극단의 가족오락극 '멍키열전'이 방방곡곡 문화 공감 국공립우수공연 초청작으로 오는 14일 오후 7시, 나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548석)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극단 제공

광주시립극단 '멍키열전' 나주 공연... 국공립우수공연 초청

14일 오후 7시 나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우수공연 초청작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나상만)의 가족오락극 '멍키열전'이 방방곡곡 문화 공감 국공립우수공연 초청작으로 나주 시민과 만난다.

오는 14일 오후 7시, 나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548석) 무대에 오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은 전국의 우수한 공연을 문화 소외지역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한 사업에서 광주시립극단의 멍키 열전이 우수공연으로 선정돼 나주 공연이 성사되었다.

광주시립극단의 연극 '멍키열전'은 세계문학 작품 속 원숭이 주인공들을 통해 인간의 위선과 가식을 날카로운 풍자와 고난도의 신체행동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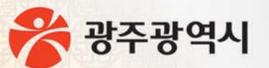
나상만 예술감독이 직접 쓰고 연출한 작품이다.

2015년 극단 '제5스튜디오'에서 초연된 이후 대구시립극단 창단 40주년 기념작으로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 서 첫 광주공연을 한 뒤 공연예술축제

이후 공연예술축제 등 레퍼토리 공연으로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김팬지 '피터'**를 중심으로 결성된 유랑극단 'Monkey Players'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각종 에피소드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6명의 원숭이들은 각각의 개성을 살린 연기와 모기를 선보인다. 시공을 초월한 동서양 문학작품 속 주인공 원숭이들이 결성한 유랑극단의 여정에서 만나는 각종 에피소드가 무대를 풍성하게 꾸민다. 출연에는 러시아 슈우킨 연극대학 출신의 최웅진이 '피터', 김고운이 '빠야트리체' 역할을 맡았으며, 서울과 광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효범, 이명덕, 정일행, 김계남, 남재영, 최규웅이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로 분신하여 열연을 펼친다. 관람은 무료이며, 나주문화예술회관 로비에서 당일 선착순으로 좌석 지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061)339-4613으로 하면 된다. /오복 기자 boh@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